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7년 포어 §

다시 거룩한 교회로!  
(롬1:17, 레19:2)

十 행동 지침十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안식)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조선지서 강해 - 호세아**

## 값을 지불하신 하나님의 사랑 (호세아 3:1 - 5)

원로목사 **이종윤**

우리는하나님앞에서전혀 희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고, 죄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을 받아 지옥을 가야 할 존재였지만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마침내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속의 대사역을 이루신 고로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1. 값을 지불한 호세아  
"내가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사고"(2절).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데려오기 위하여 은 열 다섯 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창기와 같이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속하시기 위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의미의 구속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1) 가일과 고멜

구약에 '지불한다'는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히브리어로 '가일'이라 하며, '구속한다(redeem)'는 뜻으로 어떤 사람이 물려 받은 재산을 모두 탕진했을 때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아 주고 다시 재산을 찾아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인의 힘으로는 회복이 안되지만 친척이 대신 빚을 갚았을 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재산을 다시 돌려주었을 때 빚을 갚아 준 친척을 '고멜', 구속자(redeemer)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아스가 롯의 남편에게 속했던 땅을 롯을 위해 사주는 행위를 '가일', 구속이라고 합니다.

죄 값대로 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므로 우리의 죄 값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선포하는 곳이 교회이며 구속함을 받은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 (2) 코페르

히브리어 '코페르'는 몸값을 지불하는 일, 배상금 혹은 속죄값을 지불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지옥으로 끌려 가는 사람을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끌어내는 것, 창녀의 굴에 있는 고멜의 몸값을 지불하고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코페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크고 작은 죄들로 인하여 지옥에 떨어질 수 밖에 없는데 그 가운데 결정적인 죄는 불신앙의 죄입니다.

### (3) 루오

신약에 구속이라는 말을 '풀어준다(to loose)', 묶여 있던 쇠사슬을 풀어준다는 의미의 '루오'라는 말입니다. 죄에 묶여서 지옥에 던져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악에 묶여있던 사슬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값으로 지불된 것입니다(벧전1:18-19).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시간에 변화의 몸을 입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고개를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 최악의 사슬에 묶여 지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신 사실을 믿고 구원함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일찍 깨달은 사람은 세상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며 세상 근심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 2. 돌아온 고멜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다른 신을 섬긴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심 같이 고멜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찾아옵니다. 이 놀랍고 큰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셨습니다. 고멜의 인생은 떨어질대로 떨어졌습니다.

고멜을 다시 사온 호세아는 그녀는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노예로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고멜을 다시 아내의 자리로 회복시킵니다.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의 아내가 된 우리에게 음녀처럼 판곳으로 가지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로 산 우리에게 이것을 간청하시는 것입니다.

### 3.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므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5절).

모두 하나님을 떠나는 것 같으나 그 가운데는 반드시 남은 자가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롬 11:5).

에베소서 5장에는 남편과 아내의 부부관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교회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앞에서 교회가 어떤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삶을 말씀합니다. 우리는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해야 합니다. 호세아와 고멜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 결혼을 한 사람들로써 우리와 늘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주님앞에 우리도 항상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어야 합니다.

고멜이 호세아와의 결혼관계를 무너뜨린 것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앞에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함을 입은 우리 모두 하나님앞에 신실한 삶을 살므로 영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17 섬김위원 임명한다

## 오늘 I·II·III부 예배 시

오늘 1, 2, 3부 예배시 2017년도 남녀 서리집사, 교구일꾼, 각 위원회, 교사, 찬양대원, 각 부서 섬김위원을 임명한다.

오늘 주보와 함께 배부된 2017년도 섬김위원 명단에서 본인의 이름이 기재된 모든 부서의 섬김위원들은 감사함으로 임명 받아 2017년 한 해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한다.

모든 2017년도 섬김위원들은 오늘자로 해당 부서 봉사를 시작한다. 현재 교회가 어려운 상황에서 맡은 바 책임을 잘 감당하기를 부탁드린다.

## 임시 교회학교 운영

현재 교회 학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오늘부터 102호에서 교회학교를 운영한다.

1부 예배 - 중·고등부, 2부 예배 - 유·초등부, 3부 예배 - 청년부를 운영한다.

현재 교사나 장소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어린 생명을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여 양육해주시길 바란다.



## 연말정산 서류 간소화 안내

· seoulch@hanmail.net  
위의 이메일로 ①성명 ②주민번호 ③전화번호 ④주소 ⑤가족합산여부를 적어 보내주시면 연말정산자료를 파일로 회신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문의전화 : 02-558-1106(담당: 송미라 권사)

## 현재 서울교회 재정에 관하여

서울교회는 1991년 교회설립 이후 지금까지 혹시 있을지 모를 금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은행거래 인감은 담임목사가 가지고 있고, 통장 및 비밀번호는 사무국에서 관리하는 분리정책을 시행하여 왔다. 교회의 지출은 먼저 각 부서에서 지출결의서에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회계, 부서장, 지도교역자의 서명을 받은 후 해당 부서의 위원장 장로의 결재를 한 번 더 받은 후 사무국에 해당 결재 서류를 제출하게 된다.

담임목사는 월요일 오전 9시 전까지 모든 지출서류를 확인한 후 서명하고 사무국에 결재한 전표를 내려 보낸다. 사무국은 이를 다시 한 번 유무를 확

인한 다음 재정담당 직원이 사무국에 보관중인 통장을 소지하고 거래은행에 가서 담임목사가 도장을 찍어준 출금전표를 제시하여 각 부서의 해당 지급계좌로 은행에서 대량이체를 통해 직접 송금한다. 이후 서울교회의 결재는 최종적으로 감사가 모든 결재된 서류를 감사한 후 서명을 함으로서 종결된다.

그런데 지난 1월 20일 박노철목사가 갑자기 거래은행에 통장 분실신고를 하여 사무국에 소지 중이던 은행 통장 여러 개를 재발급 받고 통장에 신고된 거래인감과 비밀번호를 일방적으로 변경하여서 은행지출업무는 물론 인터넷을 통하여 검색하던 각

거래계좌의 잔고 확인도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이로써 교회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보험료 등의 공과금은 물론 농어촌100교회 지원금, 해외선교사 지원금, 비전2020 지원금, 장학금, 유급봉사자의 봉사비(지휘자, 피아니스트 오르가니스트, 솔리스트비), 직원 봉급, 용역업체(청소경비) 등을 지출하지 못하는 등 교회의 전반적인 재정 업무가 마비되어 있다.

박노철 목사는 지난 1월 20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직접 거래은행에 나가 인감과 비밀번호를 바꾸었다.

성도 여러분은 교회가 속히 회복하여 안정될 수 있기를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바란다.

## 이종윤 원로목사의 제자의 길

###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Ⅲ

#### 1.내 명예를 메어라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로 부름 받은 이들과 예수님의 관계를 친히 설정해 주셨다. 명예를 메라는 말에는 많은 의미가 있다.

#### (1) 복종한다

정복자의 명예를 메는 이는 철저히 복종해야 한다. 소나 말이 주인에게 복종하듯 학생이 스승에게 순종하듯 정복자의 명예를 메는 이는 정복자에게 철저히 순종해야 한다. 예수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모시는 이는 그에게 모든 면에서 순종해야 한다. 삶과 생각, 계획, 일을 지도받고 인도 받아야 한다. '내 명예를 메라'는 말은 내가 나로 인해 구원을 받으려면 나는 네 주인이 되고 너는 내 노예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네가 나를 율법을 주고 명령하는 하나님으로 받을 수 없다면, 너는 나를 구원의 주로 받을 수 없다. 내 명예를 메지 않는다면 너에게 참 쉼은 없을 것이다."

#### (2) 일한다

소나 말의 어깨에 명예를 메게 하는 이유는 일하기 위함이다. 예수의 제자들의 어깨 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명예 역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하

기 위해 주신 것이다. 주님의 팀(team)에 우리를 매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의 병사요, 그리스도의 성전의 목수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전도자며 그리스도의 나라의 대사다. 우리의 구원이 행위로 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섬기는 일과 연관이 되어 있다. 우리를 구원하심은 주님을 섬기게 하려 하기 위함이기 때문이다.

열 처녀 비유에서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쫓겨났다. 달란트 비유에서 받은 악하고 게을러 바르게 활용하지 못한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쫓겨났다. 배고픈 자, 목마른 자, 병들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은 자도 지옥에 던져졌다. 예수께 속했는지 아닌지 아는 방법은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었는지 아닌지를 물으면 된다.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일 할 것이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지 않은 자요 그리스도를 알지도 믿지도 않는 자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자들은 각각 한 배의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도 받았고 칭찬도 받았다. 문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명예를 메었느냐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아닌 지를 물어야 한다.

#### (3)함께 일한다

두 마리 소에 하나의 명예를 메일 경우에는 균형 잘 잡아서 메야 한다.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이것이 필요하다. 일은 힘들고 시간은 길다. 이

때 많은 동역자가 힘을 함께 모으면 쉽다. 예수님이 '나의 명예를 메라' 하셨다. 농부의 명예가 아니다. 그리스도의 명예를 함께 지고 가라는 것이다. 고전3:9, 고후6:1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명예를 메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해야 한다. 복종의 명예를 메고 가야 하므로 겸손과 인내가 있어야 한다. 우리는 동역자와 함께 명예를 메고 있기 때문에 성도의 교통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 맺는 말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 명예를 메어라'고 주님이 명령하신다. 그러나 일은 어렵고 길은 멀 때 우리는 종종 절망의 벽에 부딪힌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은,

- ①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시다.
- ② 예수님의 명예는 쉬고 그의 짐은 가볍다. 쉽고 가벼워 누구나 질만한 명예다.
- ③ 예수님은 피곤한 제자들에게 쉼을 말씀한다. 그 쉼에는 주어진 쉼이 있고, 찾아진 쉼이 있다. 전자는 칭의의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평화에서 온 쉼이요(롬5:1), 후자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는 것을 말한다.(빌4:6-7)

죄, 가난, 무거운 영혼(근심, 염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쉼이 되신다. 세상의 것들을 주인으로 삼아 근심, 고통하지 말고 더 크고 겸손하신 그리스도께로 오라. 세상의 선생에게서 구원이 없다.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여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배우고 따르고 그의 명예를 메자. (다음 주 계속)

# 한국 장로교, 정체성을 말하다 ①

## 정체성의 근간, 신앙과 신학

### -말씀 중심의 개혁, 전통이 됐다-

장로교회는 개혁교회의 한 형태이고 장로교회의 신학은 '개혁신학'이다. 개혁교회의 첫 번째 신학자는 취리히의 종교개혁자 츠빙글리(Huldreich Zwingli)이고 개혁신학의 기초를 완성한 이는 주네브의 종교개혁자 칼뱅(Jean Calvin)이다. 따라서 장로교회의 신학 즉 개혁신학이 무엇인가 하는 이해는 16세기 종교개혁운동의 핵심적인 사고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종교개혁운동의 핵심적인 사고는 세 가지 구호로 요약돼 왔다. 즉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은혜로(sola gratia)', '오직 성경으로(sola Scriptura)'라는 것이다. 이런 사고들은 모두 로마 가톨릭의 교리들에 대한 반작용이었다.

위의 세 구호 중 두 가지 즉 '오직 믿음으로'와 '오직 은혜로'는 구원론과 관계된 것들이다. 즉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것,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오직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성경적 이해이다. 이것은 구원을 위해 선행을 강조한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거부하는 것이다.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선행을 많이 해야 하며,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고도 남는 공덕을 쌓은 성자들의 잉여분의 공덕은 교회에 비축되고, 교회에 헌금을 하거나 면죄부를 사면 그만큼 교회에 비축된 잉여분의 공덕에 힘입어 연옥에 가서 지낼 기간의 얼마를 감감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교리였다. 그런 교리가 종교개혁자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롬1:17, 3:20·28)" 한 성경의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원론은 결국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구원론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로마 가톨릭의 '선행에 의한 구원' 교리나 '공덕주의' 교리, 그리고 이와 연관된 '면죄부' 교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중보적 능력을 가졌다는 많은 성자들을 만들어냈고, 그 정점에 성모 마리아를 두게 됐다.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론'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의 공동대속자(coredeptrix)로 추앙하며 기도와 찬양의 대상으로 삼게 됐던 것이다. 종교개혁자들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라는 구원론은 이런 로마 가톨릭의 마리아론이나 성자숭상의 관행을 거부하는 것이었다. 종교개혁자들은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행4:12)"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행4:8)" 행한 증언을 그의 자칭 계승자들이 지어낸 말보다 더 믿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직 믿음으로'의 신학은 선행이나 의로운 삶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조하는 것이며, 단지 그것들을 구원의 조건이나 수단으로 여기지 않을 뿐이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



이수영 목사  
(새문안교회 은퇴목사)



**오직 믿음으로**  
(sola fide)  
**오직 은혜로**  
(sola gratia)  
**오직 성경으로**  
(sola Scriptura)



문에 선행을 하는 것이다. 택하심을 받고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당연히 뒤따르는 결과가 선행이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사역은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믿음에 걸맞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게 하시는 성화의 역사로 계속되는 것이다. 성화의 삶은 구원 받은 열매이며 표지이고 증거이지 결코 구원의 전제나 수단인 아니다.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개신교의 핵심교리는 '행위에 의한 구원'이라는 비성경적 교리를 배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또한 하나의 행위로 환원시키는 오류를 범하기 쉽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말은 '내가 잘 믿어 구원받는 것'이라는 뜻이 아니다. '내가 잘 믿으면 구원받고, 못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은 율법주의로의 회귀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믿는지 아닌지를 보시고 이에 따라 구원의 여부를 정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그리고 그 택하심을 따라 정해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당신께서 주신 그 믿음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또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실제로 의로운 존재들로 날마다 조금씩 변화시켜주시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의 모든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역

이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은 그러므로 '오직 내가 잘 믿어서' 구원 얻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인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오직 믿음으로'의 신학은 자연스럽게 '오직 은혜로'의 신학일 수밖에 없음이 드러난다. '오직 은혜로'라는 사고는 '신인협력설' 혹은 '공역사상' 즉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협력으로 이루어진다는 로마 가톨릭의 주장을 배척하는 것이다. 앞서서 믿음이 또 하나의 행위로 여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거니와 그것은 믿음이 우리 자신의 의지와 결단과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는 말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8-9절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한 대로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고, 우리가 스스로 믿어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의지가 협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확신이었다.

직접적으로 구원론에 관련된 것은 아니나 종교개혁운동의 한 핵심 사고로 구호화한 것이 '오직 성경으로'이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에 성경과 같은 권위를 부여한 로마 가톨릭의 신학에 맞서는 것이다. 즉 오직 성경만을 진리의 원천과 규범으로서 인정하는 것이다. '오직 성경으로'는 그 자체가 하나의 신학사상이기도 하지만 또한 하나의 신학방법론이기도 하고 하나의 신앙개혁의 방법이기도 했다. 종교개혁자들은 '원천으로 돌아가자(ad fontem)'는 당대의 문예부흥과 인문주의의 방법론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중세교회의 해석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된 원문성경을 각 나라 말로 번역하고 출판해 보급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게 했다.

이렇게 '오직 성경으로'의 신학은 성경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듣는 노력이었으며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나며 우리의 하나님 경배와 신앙의 이해를 오도할 수 있을 모든 오류들을 철저히 제거하려 했던 신앙개혁운동이었다. '개혁교회'만 종교개혁운동으로부터 유래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유독 개혁교회에 '개혁'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은 바로 이 교회들이 성경의 모든 증언과 가르침에 충실하려고 했으며, 따라서 그 교회들의 개혁운동이 총체적이고 철저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하는 교회, 그것이 바로 장로교회의 전통이다.



## 배움의 기회를 준 호산나대학



양재영  
(호산나대학)

우리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다 그렇듯이 재영이가 나이를 먹을수록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기엔 뭔가 부족하고 좀 더 가르쳐서 사회에 내 보내야 될 것 같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는 대학이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서글펐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학교 선생님이 졸업 후에 재영이가 갈 수 있는 몇 군데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 중 호산나대학이 있어서 너무나도 반가운 마음으로 학교에 문의하여 재영이가 다닐 수 있는지 알아본 후 입학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여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내성적인 재영이가 호산나대학에 입학해서 처음부터 학교에 잘 적응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교에 안가겠다고 떼를 쓰고 짜증을 부릴 때면 정말 절망적이고 힘들었지만 부학장님과 여러 교수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속에 재영이가 차츰 적응하고 대학생활을 즐겁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방과후 수업으로 드림을 접하며, 재영이의 새로운 재능도 발견하고 학교행사나 음악캠프 때에는 무대에서 연주도 하면서 성취감도 느끼며 행복해했습니다.

2학년 때에 사무자동화과를 전공하면서 컴퓨터

관련 자격증도 4개나 취득하였고 졸업을 앞두고 생각도 못했던 의정부성모병원 원무과에 사무보조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영이가 아침 일찍 일어나 직장을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부모로서 가슴뿌듯한 행복감을 느낍니다.

되돌아보면 재영이가 호산나대학을 다니게 된 건 행운이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으면 가엾은 우리 아이들을 받아들여 사명감을 갖고 보듬어주시고 가르쳐서 사회의 일원으로써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게끔 해주신 부학장님과 교수님들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영이가 서울교회를 다니면서 표정도 밝아지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고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줘서 감사한 마음에 재영이의 첫 월급을 작으나마 기부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재영이의 수입의 일부를 꾸준히 기부를 하기로 재영이 아빠와 의논하여 결정하였습니다.

호산나대학이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여 재영이 같이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아이들을 받아들여 배움의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 양재영 학생은 현재 호산나대학 사무자동화과 3학년 졸업예정자로 2016년 12월 1일, 경기도 의정부에 소재한 의정부성모병원에 조기취업 해 원무과에서 사무보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운동에 동참합시다!

BMW 캠페인 연중 실시 / 새가족과 노약자 차량 최우선 주차 / 인근 주차장 적극활용 / 향촌직 술선수범

현재 교회 지하 주차장이 폐쇄되었습니다. 교회가 정상화 될때까지 성도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거나 공공주차장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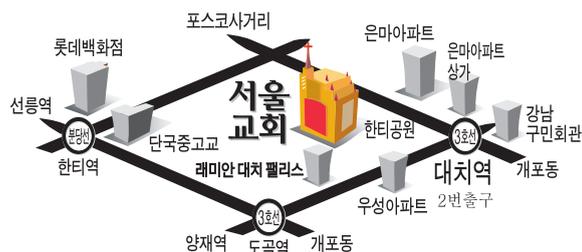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2017년도 섬김위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신실한 섬김의 종들이 되게 하소서.
2.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소서.
3. 공의와 법도가 바르게 실현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 예 배	오후 5시	웨스트민스터 홀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 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